無의 바닥서 찾은 詩로 실상을 보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⑤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

꿈과 幻影

셰익스피어는 '우리는 꿈의 재료로 만들어졌다(〈폭풍〉4막1장)' 고 일갈한바 있다. 꿈이란 실재가 아니다. 꿈이란 환영이며 꿈의 재료인 우리 역시도 환영이다. 〈목신의 오후(1876)〉보다 150년 전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1725)〉이 있었고 〈구운몽〉보다 436년이나 앞서 일연 스님이 펴낸 〈삼국유사〉에는 '조신의 꿈' 설화가 있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꿈에서 출발한다. 꿈속에서 환상을 실현해보지만 깨고 나면 역시 꿈의 세계다. 꿈으로부터의 각성은 일장춘몽. 그러나 말라르메는 '춘몽(春夢)' 의 의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허무라는 환상의 베일을 한 겹씩 벗겨내고자 한다. 우선 〈조신의 꿈〉과 〈구운몽〉의 꿈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신의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경주 세달사의 승려인 조신은 불공드리러 온 태수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출가해 버리자 마음앓이를 하다 깜박 잠이 든다. 꿈속에서 장원급제하고 그녀와 맺어져 40년을 함께 지낸다. 생활은 곤고해지고 큰 아이는 굶어 죽는다. 하룻밤 꿈속에서 사람의 평생을 경험한 그는 탐하던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 불도에 더욱 정진한다는 줄거리다.

〈구운몽〉은 중국 연화봉 아래 불도를 닦고 있는 성진(性眞)의 이야기다. 성진은 육관대사의 분부로 용궁에 다녀오던 중 우연히 팔선녀를 만나 잠시 동안 석교 위에서 희롱하며 정을 나눈다. 그 죄로 아홉 사람은 인간세상으로 내쫓긴다. 성진은 사대부 양소유로 환생하여 사방에 흩어져 있는 팔선녀와 차례로 만나 자신의 아내로 삼고 부귀공명 등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나 별것 아니었다. 여전히 죽음 앞에 있는 티끌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다.

2500년 전 부처님 재세 시, 외모가 준수했던 붓다의 제자 아난이 성안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등가녀의 딸이 한 눈에 반하고 만다. 그녀는 마술사인 엄마에게 마법으로 그를 유인해달라고 간청한다. 마법에 걸려든 아난이 몽유병자처럼 마등가녀의 집을 찾을 때, 붓다는 신통력으로 이 상황을 꿰뚫어보고 마법을 멈추게 하고 그를 구해낸다. 이를 계기로 아난과 붓다의 문답이 이어진다.

마음과 눈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의식에 이르기까지 붓다는 "분별의식이 생겨나면 색상, 허공 등의 현상법칙도 따라서 생겨나고 분별의식이 소멸하면 색상, 허공 등의 현상법칙도 따라서 소멸한다. (중략)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 도 없고 '주재' 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오음(五陰, 色 · 受 · 想 · 行 · 識)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오음(오온) 역시 '나' 도 '주재(主宰)' 도 없다"고 한 〈능엄경〉의 말씀을 주목하게 된다.

"5음이 망상에서 생겨난 것임을 깨달으면 뒤바뀐 생각을 단박에 녹일 수 있지만 5음을 끊어 없애는 일은 단박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5음을 하나하나 깨뜨려 없애야 한다"며 〈능엄경〉에서 그 하나하나의 격파를 시현해 보이고, 5음의 공성(空性)을 파헤친다. 이 다섯 겹의 감수(感受)의 음경(五陰)은 바로 다섯 가지 망상이 형성한 것으로 실체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실유(實有)라고 여기는 현상계는 사실 우리의 심층마음이 만들어 낸 허

'無 · 거품 · 순결한 시' 세 단어가
말라르메 시를 관통하는 주제
헛됨을 부수고 순수만을 추구

"幻을 여의면 깨달음" 경구처럼
시인 말라르메는 꿈을 깬 '覺者'

상(幻)이다. '나' 는 실로 없지만 거짓으로 있음이 허용되는 가유(假有)는 제7말나식의 '내가 있다' 는 잘못된 생각으로 근본번뇌를 야기한 때문이라고 한다.

꿈을 깬다는 건 '내가 있다고 잘못 안' 전도몽상(顚倒夢想)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여기 과거 7불의 두 번째 부처인 시기불(尸棄佛)의 게송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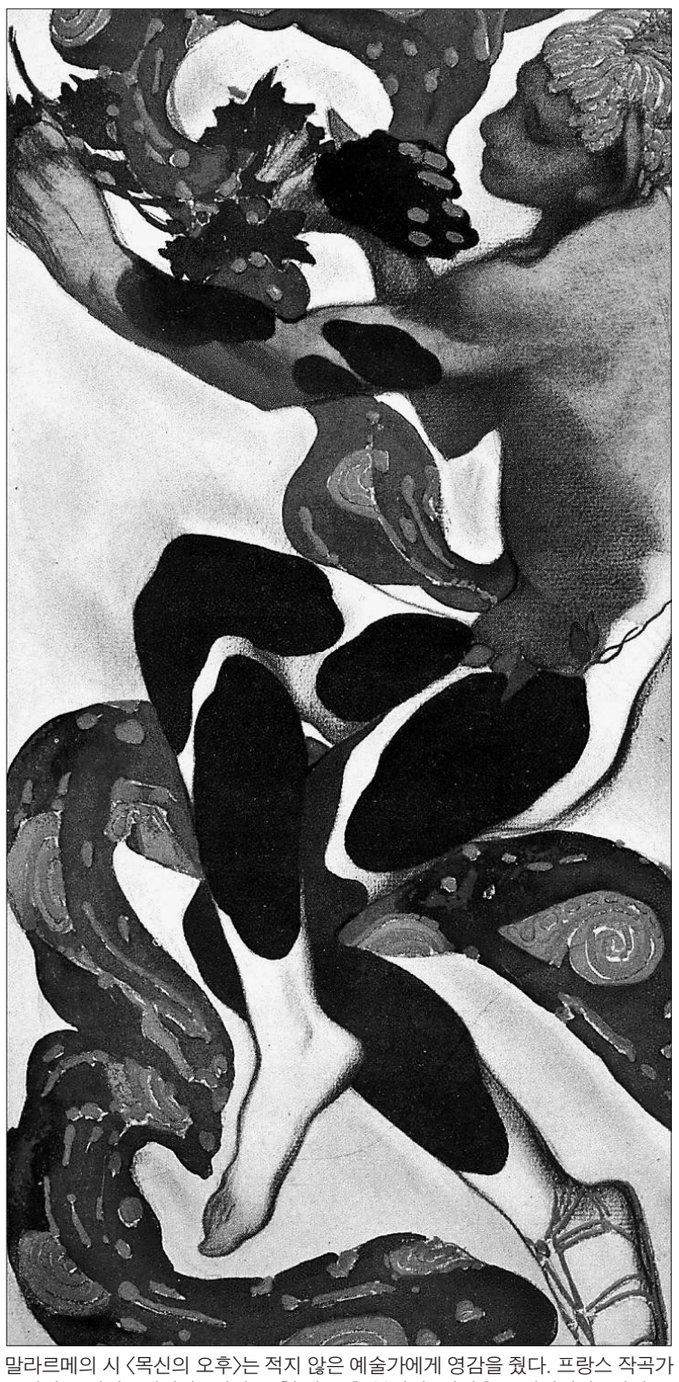
"몸이란 물거품, 마음은 바람(身如聚沫 心如風)/환에서 나온 것은 무근무실상(幻出無根無實相)"

환술로 생겨난 몸과 마음(身識)이 근본도 실상도 없으니 마음(心識)의 실체란 본래 없다는 것. 마음은 본래 무생(無生)인데 근 · 경 · 식(根 · 境 · 識)으로 인하여 온갖 세계가 표출(有)된다. 눈앞에 대상이 없다면 마음 또한 없는 것을. 마음 따라 근, 경, 식의 작용으로 만 가지 법이 생기고, 한 생각의 마음 따라 모든 것이 사라진다. 마음의 인연 화합으로 잠시 드러난 그것(인식현상). 그것도 그것이랄 게 없는 것 아닌가. 말라르메는 님프의 뒤꿈치의 그림자를 보며 그런 생각을 키워나간 것이 아닐까?

〈목신의 오후〉를 쓰고 17년이 지난 1893년, 말라르메는 문학지 〈라 플륨〉의 창간 일곱 돌을 기념하는 연회의 주재자가 되어 축배를 겸하여 준비한 시 〈인사 SALUT〉를 낭송한다.

무無, 이 거품, 순결한 시
단지 술잔을 내보일 뿐이니
저 멀리 보이는 인어 떼들의
엎치락뒤치락 가라앉는 모습과 같다

첫 연을 소리 내어 읽으니 축배의 잔을 들고 서 있는 단아한 시인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다. '나는 이 술잔을 들고 여러분 시인들 앞에 섰습니다. 나의 시는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으며, 빈 하늘처럼 순결한 처녀 같은 것입니다. 술잔에 이는 거품을 봅니다. 그 거품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포말 같고, 나는 그 파도 너머로 춤추며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인어 떼들을 보는 듯합니다. 그것은 깊은 바닷 속에서 노래하며 헤엄쳐 다니는 아름다운 시의 여신들입니다.' 이런 취지를 담은 시는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출발하여 무→거품→바다→항해→창조라는 시작(詩作)의 과정을 소개한다. 평소에 '여러분들을 지도한다는(화요회모임) 생각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다' 고 하던 그가 뱃전 후미에 다소곳이 앉아 동료, 후배 시인들에게 '우리 돛의 하얀 근심에 값하는 모두(시인들)에게 예 올린다' 는 대목은 시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스 현자 같았다던 그의 겸손한 인품을 짐작하게 한다.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는 적지 않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줬다.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는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에 곡을 붙였다. 사진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를 발레극으로 꾸민 바슬라프 니진스키의 1912년 공연 포스터.

無의 바닥에는 시가 있네

'무(無), 이 거품, 순결한 시(Rien, cette écume, vierge vers)' 세 마디로, 그의 시 정신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 것도 없는 '무(無)' 가 진공(眞空)이라면 '거품' 은 거기에 부유(浮遊)하는 사랑과 미(美)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상징한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아들인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절단된 우라노스의 음경이 바다에 떨어져 거기에서 생긴 하얀 물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한다. 그리하여 '거품' 은 관능, 욕망, 출생 등 환영(幻影)의 묘유(妙有)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순결한 시' 란 말라르메가 일생을 추구한 순수시다. 시(詩)란 '절(言+寺)의 말씀', 문자를 세우지 않는(不立文字) 진리, 혹은 중도(中道)로 풀이할 수 있다.

나는 죽었다가 내 정신의 마지막 보석상자의 열쇠를 지닌 채, 되살아났네(…)
나는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무(無)까지의 꽤나 먼 길을 내려갔었네.
거기에는 오직 미(美)밖에는 없으며
그 아름다움의 완벽한 표현은 단 하나뿐이네. 시(詩).
-서한 카잘리스에게(1866년)

일생동안 시를 종교처럼 생각하며 '시의 종교', '미의 종교', '이상의 종교' 에 도달하기 위해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버리고 구도자적 삶에 헌신한 결과 그는 보석상자(詩)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순수시는 세상의 헛됨(虛無)을 덮을 수 있는 미(美)와 예술, 그리고 지(知)의 전변을 위한 고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분신인 이지튀르가 말하듯 허무(虛 · 無)는 진실이다. 색(色)만도 아닌 공(無)만도 아닌 유무상즉(有無相卽)의 '허공 꽃' 그래서 허무는 진실일 수 있다. '있음이 곧 텅빔(卽有卽無)' 이고 '텅 빔이 곧 있음(卽無卽有)' 이다. '공즉시색(空卽是色)' 이므로 허무(空)가 진실인 것이다.

말라르메는 허망한 꿈을 깬, 즉 그것이 모두 자신의 욕망과 집착임을 자각하고 그것의 비실체성(空性)을 통찰함으로써 그로 인한 번민으로부터 벗어난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 되는 이유다. 자신의 마음이 펼쳐낸 욕망의 그림을 보고 환(幻)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비실체성을 알아차리는 '각성(깨어있음)' 의 상태를 보여준다. 〈원각경〉의 말씀대로 "환(幻)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다." 그는 꿈을 깬 각자(覺者)였다.

10년 전, 나는 파리 제17구 롬가의 89번지를 찾았다. '〈목신의 오후〉가 창작된 집' 이라는 표지판이 반가웠다. 베를렌느, 앙드레 지드, 발레리, 독일의 슈테판 게오르규, 영국의 조지 무어, 오스카 와일드, W · B 예이츠 외 많은 예술가들이 매주 화요일이면 이 집에 모여 그로그(럼주)술을 들면서 〈목신의 오후〉에 관한 해설을 듣거나 시와 음악에 대해 공부했다고 한다. 손님들은 의자가 모자라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몸체가 작고 야윈 이 시인의 고결한 담론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 롬가의 그 좁다란 방에서 우리들은 바쁜 도시의 소음이나 정치의 풍설이나 책략이나 음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나는 앙드레 지드의 회상을 떠올리며 어둠 속에서 그의 5층 방을 향해 머리를 젖히고 올려다보았다. 좁다란 나선형 계단을 빙빙 돌아 올라가면 아직도 그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그 방에는 아직도 램프의 황량한 불빛이 켜진 아래, 글을 거부한 하얀 백지 앞의 고뇌로 인해 숱한 밤들을 지새워야 했던 그의 모습이 붙박여 있는 듯했다.

악의에 찬 너의 쓸데없는 반항으로 어디로 달아날까?
나는 미쳤다. 창공이여! 창공이여, 창공이여, 창공이여! -〈창공〉에서

시인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했다. 글쓰기는 그에게 이런 아픔이었다. 〈불운〉에서 그는 시인의 정신적 좌절을 나타내며 〈종치는 사람〉에서는 목을 매어 자살하는 모습을 환기시킨다. 시인으로서의 무능에 대한 자신의 통절일 것이다.

생활에도 서투른 그를 잠깐 추억하는 동안 일행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건널목을 향해 나는 불편한 다리로 그들의 후미를 황급히 쫓아야 했다. 먼 이국땅에서 온 손님을 배웅이라도 하듯 이지튀르가 다가와 한 마디를 내게 일러준다.

무(無)는 떠나고
순수의 성(城)은 남아 있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이 한 마디가 아직 내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무(無)의 바닥에서 시(詩)를 건져 올렸지만 나는 무(無)의 바닥에 오롯한 법신(法身)을, 그 진리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맹난자 수필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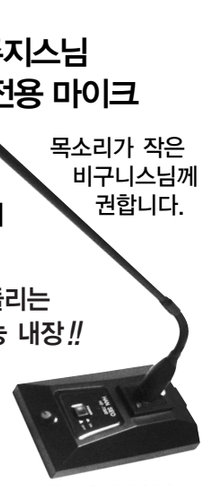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